

# 정국 냉기류... 임시국회 성사 될까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원내외 7개 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시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지속...문 의장-원내대표 회동 취소  
민주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 3야 "열흘 필요"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공조로 연말 '포스트 예산정국'이 격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이 빠진 여당과 제1야당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면서 얼어붙은 연말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이견으로 정거국회 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간 선행이 달라 성사될지 미지수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11일 이후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야 대립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

을 둘러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단식간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일단 야 3당의 반발 속에 10일로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이해적이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며 "문 의장이 (회동하자)는 대화를 걸어 왔지만 '앞으로 계속 두 당하고만 같이 하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고, 취임 100일을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섯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에 각각 농성장을 찾아 야 3당 달래기에 나섰다. 서로 견제치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 이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손 대표가 단식을 풀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으나 손 대표는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정의당 이 대표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감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예산정국 후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열흘가량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지 않은 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다.  
12월 임시국회 문제 등을 논의하려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야 한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11일)이 끝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들어서게 되면, 상견례 차원에서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큰 데다 연말 해와 일정으로 출국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막판 표다지기

김학용·나경원, 문자·대면 접촉 늘리며 지지 호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학용·나경원(기호순) 의원의 경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는 9일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로 보내거나 대면·전화 접촉을 늘리며 막판 표다지기에 나섰다.  
김 의원과 나 의원은 상대 후보와 차별화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거나 향후 원내 운영 전략을 공개하며 동료 의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은 자신이 비서관, 도의원부터 시작한 '정치 흡수자' 출신으로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소통을 중시하는 친화력, 이를 바탕으로 한 대외 협상력을 강

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 의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선 시 보수 진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도 차별화 포인트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했던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반면, 나 의원은 상대적으로 친박(친박근혜)계·잔류파의 지지세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계파 구도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특정 계파로 분류하기 어려운 중립 지대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도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농어촌 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이재호 의원 대표 발의 '직속 특위 설치법' 통과

지난 7일 이재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어업을 대통령직이 직접 챙기게 됐다.  
이 법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고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 특별위의 출범

은 농정개혁에 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2017년 8월 법안을 발의했던 이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특별위 설치하는 농민의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였다"며 "농어촌 특별위는 강력한 농정개혁과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의원들 '호남 예산 지킴이' 맹활약

민주 송갑석·서삼석, 세계수영대회·경전선 사업비 등 확보  
바른미래 박주선·주승용, 평화당 박지원·장병완 등 물밑 지원

지역 정치권의 분열에도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된 데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분투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중진들의 물밑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 광주 송갑석 의원(서구 갑)과 전남 서삼석 의원(무안·신안·영암)은 초선임에도 예결위와 예결소위에 서 맹활약,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송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 수영선수관에도 추가 예산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를 위해 송 의원은 본회의 예산 통과 직전 자정이 넘어서도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당 지도부의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사업 예산 216억 원을 증액한 것은 물론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 사업화, 마이크로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등 지역 미래 산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서 의원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당의 전략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특유의 친화력과 마당발 역할을 하며 여야를 넘나들며 예산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전선 사업비 예산을 확보, 88년 만에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비를 확보, 보잉 747기 등 대형기가 취

항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했다.  
여기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400억 원 증액),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1000억 원 증액),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비(5억) 확보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두는 내공을 보였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물 밑에서 지역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장병완 의원 등은 인맥을 바탕으로 여야와 정부를 압박하며 지역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최경환,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법 발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며,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아왔다"

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다시 이뤄지고,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